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분석 및 제언*

An Analysi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on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y Websites and Its Implications

이한슬 (Hanseul Lee)**

초 록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초저출산 극복과 아울러 출생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책무이다. 본 연구는 국내 17개 광역대표도서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문헌연구법과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단 2개 도서관(11.8%)만이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32개의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제공 주체에 따른 분석 결과, 25개 정보원(78.1%)이 보건소에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병원(6개, 18.8%) 및 공공기관(2개, 6.3%)에서 제공된 정보원도 각각 확인되었다. 또한,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도구 중 하나인 HON 코드를 활용하여 32개의 건강정보원을 평가한 결과, “상호보완성”, “정보출처”, “작성자의 투명성”, “광고 및 편집 정책의 정직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국내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을 통해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원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평가한 결과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상에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ABSTRACT

In contemporary South Korea, ultra-low birth rates have become a critical social issue. Equally important is the social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healthy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children.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related to online health information available on the websites of 17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in South Korea. Using literature review and content analysis methodologies, the study found that only two libraries (11.8%) offered 32 health-related resource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hrough their library websites. Of these resources, 25 (78.1%) were provided by public health centers, while hospitals contributed six resources (18.8%), and public institutions provided two resources (6.3%). Additionally, an evaluation of these 32 health information resources using the HON code, a recognized tool for assess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revealed relatively low satisfaction in areas such as “complementarity,” “attribution,” “transparency of authorship,” and “honesty in advertising and editorial policy.” Furthermore, the researcher conducted a comparative evalu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health information resources available through the search engines Naver and Google in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outlines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online health information services related to children and adolescents.

키워드: 온라인 건강정보, 정보서비스, 어린이, 청소년, 공공도서관, 광역대표도서관
online health information, information services, children, adolescents, public libraries,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 더 나은 논문이 되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오상희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hslee@mju.ac.kr)

■ 논문접수일자 : 2024년 9월 7일 ■ 최초심사일자 : 2024년 9월 11일 ■ 게재확정일자 : 2024년 9월 18일

■ 정보관리학회지, 41(3), 431-459,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3.431>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보건과 의료시스템을 둘러싼 환경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중이 의료진에게 직접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문의하거나 의학서적을 통해 정보를 획득했으나, 현재는 컴퓨터와 인터넷, 신문, 잡지, 텔레비전, 휴대전화, 모바일 앱, 소셜미디어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얻고 있다. 이러한 건강정보의 이용행태 변화는 대중의 건강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최한나, 2016). 대중은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건강정보를 직접 찾기는 용이해졌지만,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24).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는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소비자 건강 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이하 CHI)로 정의한다. 미국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and the Consumer and Patient Health Information Section, 1996)에 따르면, 소비자 건강 정보는 “환자 및 가족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건강 및 의료 주제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나아가, “질병의 증상, 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의학, 건강증진, 건강의 결정요인 및 보건의료체계로의 접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Medical Library Association and the Consumer and Patient Health Information Section, 1996). 다시 말하면, 건강정보는 의료

와 의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도 포함한다(박태연, 2015).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의 흥수 속에서 건강과 관련된 허위 정보는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잘못 사용할 경우 개인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Borges do Nascimento et al., 2022; Suarez-Lledo & Alvarez-Galvez, 2021). 따라서, 이러한 허위 정보를 경계하고,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별할 수 있는 건강 정보 리터러시 역량은 대중에게 필수적이다. 대중이 이러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돋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기관 중 하나가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다(노영희, 2011; 노영희, 오상희, 2011a; 2011b; Baker & Manbeck, 2002; Burns, 2015; Flaherty, 2013). 예를 들어, Baker와 Manbeck(2002)은 미국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대중의 건강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며, Flaherty(2013)는 공공도서관이 농촌 지역 사회에서 병원, 의료 조직 및 공공 보건 기관과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유익한 정보 제공 기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노영희(2011)에 따르면, ‘2010년 도서관연감’에 나타난 748개 국내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62개(8.3%)에 불과했다. 더욱이, 노영희와 오상희(2011b)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4%의 사서만이 자신의 도서관 웹페이지에서 온라인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고 응답했다.

건강정보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23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가입국가 38개국 중 최저수준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24;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물론, 지극히 낮은 출산율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사회적 책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여성가족부(2024)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고등학생의 약 26%가 최근 1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밝혔고,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라고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2024)의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0대의 자살률을 살펴보았을 때, 인구 10만명 당 2018년(5.8명)과 2019년(5.9명)에는 5명대였으나, 2020년(6.5명)에는 6명대, 2021년(7.1명)과 2022년(7.2명)에는 7명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자살률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0대의 증감률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심각한 흐름을 경시하지 말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적재적소에 제시하여 사회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들이 시의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외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정확하고 믿을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데 공공도서관이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Hughes-Hassell & Hanson-Baldauf, 2010; Lee, 2013; Lukenbill & Immroth, 2007). 예를 들어, Hughes-Hassell과 Hanson-Baldauf(2010)는 101개의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중 36개(35.6%) 웹페이지만이 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건강 관련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해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빈곤율이 낮은 지역(10% 미만)과 빈곤율이 25%에서 30% 사이인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 서비스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국내 광역(지역) 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 기준 중 하나인 Health On the Net(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은 이들의 전반적인 발달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한 인구는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번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 연구목표 및 연구질문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각 지역 대표도서관인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의 현황을 이해하고, 나아가 국내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원들을 분석하여 차후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다방면의 공공기관에서 건강정보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세부 목표로 나뉜다. 첫째, 국내 17개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어떤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는지 분석하고, 온라인 건강 정보 평가도구 중 하나인 Health On the Net (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다. 둘째, 국내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두 개의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에 대한 온라인 정보원을 유형별로 선별하여, 그 또한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도구 중 하나인 Health On the Net(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정보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제언한다.

위의 연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연구 질문 (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RQ1).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17개관은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만약 제공하고 있다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원의 출처, 주제는 무엇인가?
- 연구질문 2 (RQ2).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원을 평가도구(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어떠한가?
- 연구질문 3 (RQ3). 국내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평가도구(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 결과는 어떠한가?

2. 선행연구

2.1 건강정보서비스와 관련한 광역대표 도서관의 역할

광역대표도서관의 개념은 곧 지역공공도서관의 대표도서관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부응이라는 큰 전제하에 시작되었다(배순자, 김병재, 2006). 2000년대 초반, 기초자치단체간 도서관서비스의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 기관들 간의 협력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중심의 지역대표도서관 체계가 구상된 것이다(김홍렬, 2009; 배순자, 김병재, 2006).

대한민국 「도서관법」(시행 2023. 8. 8.) 제4장 공공도서관 중 제1절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제25조) 및 업무(제26조)와 관련하여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예컨대, 제25조는 “대한민국 각 시·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 및 지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2024)에서 제공하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1,236개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하고, 현재 17개의 광역(지역)대표도서관이 운영중이다. 각 지역의 대표도서관은 <표 1>과 같다.

〈표 1〉 광역대표도서관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24)

구분	도서관명	주소	홈페이지 주소
서울	서울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https://lib.seoul.go.kr/
부산	부산도서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10번길 33	https://library.busan.go.kr/busanlibrary/index.do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10길 25	https://library.daegu.go.kr/gukbo/index.do
인천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776번길 53	https://www.michuhollib.go.kr/
광주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30	https://citylib.gwangju.kr/main
대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10	https://www.daejeon.go.kr/hanbatlibrary/index.do
울산	울산도서관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40	https://library.ulsan.go.kr/
세종	세종시립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07	https://lib.sejong.go.kr/main/main.do
경기	수원시선경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풍로 23번길 68	https://www.suwonlib.go.kr/sk/
강원	춘천시립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우석로 100	https://library.chuncheon.go.kr/
충북	청주시립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	https://library.cheongju.go.kr/lib/front/
충남	충남도서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https://library.chungnam.go.kr/main.do
전북	전북도청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https://library.jeonbuk.go.kr/
전남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10	https://lib.jeonnam.go.kr/
경북	경북도서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도청대로 200	https://www.gb.go.kr/lib/main.tc
경남	경남대표도서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립로 45번길 59	https://lib.gyeongnam.go.kr/index.lib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221	https://www.jeju.go.kr/lib/index.htm

또한 「도서관법」 제26조에서는 광역대표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업무를 여덟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첫째,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 둘째,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며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넷째,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여섯째,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해야 하고, 일곱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서술한다.

「도서관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광역대표도서관은 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사 및 연구하고 지역도서관을 지원하며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건강정보서비스의 맥락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노영희, 오상희(2011a)는 문헌분석을 통해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해야 할 소비자 건강정보(Consumer Health Information, 이하 CHI) 서비스로 “1) CHI 장서 및 정보원 개발, 2) CHI 참고서비스, 3) CHI 이용자 교육, 4) CHI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5) CHI 아웃 리치 프로그램 개발, 6) CHI 협력체계 구축(p.47)”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개의 공공도서관이 위의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공공도서관이 건강 정보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발 및 수행하고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의 광역대표도서관은 선구적이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2.2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과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이기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한 건강정보의 수요는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조영주 외, 2018; Anne-Laure et al., 2024; Hughes-Hassell & Hanson-Baldauf, 2010; Lee & Smith, 2022). 예컨대, Anne-Laure et al.(2024)은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는 청소년 970명을 대상으로 건강정보에 대한 수요를 설문연구한 결과, 수면, 정신건강, 신체활동, 자아인식, 성(性)과 관련한 주제가 큰 관심을 받았음을 발견했다. 또한, 청소년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전염병, 의료연구 및 환경과 같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반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나아가, 미국 공공도서관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Hughes-Hassell과 Hanson-Baldauf (2010)는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공되는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의 주제는 성장과 발달, 자기표현, 건강과 관련한 기본 상식(응급처치 등), 정신건강, 안전, 성(性), 음

주와 약물 등이라고 밝혔다.

조영주 외(2018)는 국내 4,06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性)과 관련한 지식 수요에 관해 연구한 결과, 학생들이 ‘학교 성교육(48.9%)’ 다음으로 ‘SNS, 유튜브 등 인터넷(22.5%)’을 통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한 고민은 ‘혼자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정보를 찾는다’라는 학생이 3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온라인상의 건강정보는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의 건강정보 수요도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Lee와 Smith(2022)는 만 0-3세 영유아 자녀를 둔 296명의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연구를 진행한 결과, 98.6%의 어머니들이 지난 6개월간 아이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탐색했다고 밝혔고, 전체의 18.2%에 해당하는 어머니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아이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탐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19개의 다양한 정보원 가운데 인터넷(www)을 가장 빈번하게 활용한다고 보고했다. 영유아 건강과 관련하여 신뢰할만한 온라인 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강조하는 연구 결과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고해숙과 김성희(2020)는 국내 중, 고등학생 27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활용 능력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성별이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우수할

수록,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교 외에서 디지털기기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건강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건강정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에 대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연구이다. 같은 맥락에서, 변은샘(2024)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문해력)을 측정한 결과, 디지털 학습격차가 건강정보 격차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동기 건강정보 격차는 평생에 걸친 건강 불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적이고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은샘, 2024).

2.3 MedlinePlus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비교를 통한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서비스 제공현황

북미 및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대중에게 신뢰

할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도서관들이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1836년 국립보건원의 일부로 국립의학도서관을 설립하여, 의료진, 환자와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다양한 의학 및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저장,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23). 특히, 이 도서관은 1998년 MedlinePlus라고 하는 무료 건강정보 DB를 온라인상으로 전세계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끔 오픈하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Miller et al., 2000). 1,000개 이상의 질병에 대한 증상, 원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영어, 스페인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주기적으로 내용이 검토되고, 링크는 매일 업데이트된다. 이를 통해, 일반 대중을 위한 신뢰성 있는 의학 및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전문 의료진과 일반인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보를 조직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MedlinePlus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 국내에도 존재한다. 예컨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국가건강정보포털이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국립의학도서관(1836년 개관)과 비교하면 국내 유관기관은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국립의과학지식센터 - 2014년 개관), 성격도 다르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전문학술정보관리 및 의과학지식관리와 같은 보건의료 연구구성과물을 보존하는 아카이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데이터 공유정책 실현을 주요기능으로 삼고 있다(이혜영, 2024). 뿐만 아니라,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있기에 아동 및 청소년층을 위한 건강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예컨대, <그림 2>와 같이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그들의 MedlinePlus에서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한 건강정보를 202개의 주제로 다양하게 제공하는데 반해,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단 10개의 주제에 한정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주제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MedlinePlus는 각종 질병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성장과 발달, 치아 건강, 사회적/정서적 건강, 건강한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소비자 건강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건강정보포털은 특정 질병정보에 한정되어 있다. 이혜영(2024)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역시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국내의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국가건강정보포털도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속하지

The screenshot shows the MedlinePlus homepage with a red box highlighting the 'Children and Teenagers' section. This section lists various health topics such as Abuse, Acromegaly, Acute Flaccid Myelitis, ADD, Adenoidectomy, Adenoids, ADHD, Adolescent Development, Adolescent Health, Adolescent Pregnancy, Alcohol and Youth, Asperger Syndrome, Asthma in Childre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Autism. A blue box highlights the '202개 vs. 10개' comparison, which refers to the number of health topics available for children/teenagers versus adults. The right side of the page shows the main search interface for adults, including sections for '건강정보', '의료기관찾기', '만성질환건강통계', '알림정보', '포털이용안내', and '소개'. It also features a search bar and various filters for gender, age group, and body system.

<그림 2>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좌)와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우)

않기에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건강정보는 실제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공공도서관의 각 지역 대표도서관인 광역대표도서관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2.4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기준

온라인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도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평가도구는 HON 코드이다(Boyer et al., 2011; Fullard et al., 2021). HON 코드는 스위스 제네바에 1995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 HON 협회(Health On the Net Foundation)가 개발하였다.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행동 강령을 8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준수하는 웹사이트에 <그림 3>과 같은 인증 마크를 부여했다(김자경 외, 2007).



<그림 3> HON 코드 인증 마크

Boyer et al.(2011)에 따르면, HON 코드는 3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2010년 말까지 102개 국에서 7,400개 이상의 사이트가 인증되었으며, 2007년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건강 웹사이트의 공식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HON 협회에서 온라인 건강정보의 신뢰성과 유용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 및 보건 웹사이트에 제안한 8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손애리, 2000; Boyer et al., 2011;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2023).

- (1) 권위성(authority) - 저자의 자격을 가진 의료 전문가만이 제공하는 정보 및 조언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 명확한 진술이 필요함.
- (2)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며, 사이트의 목표와 이용 대상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어야 함.
- (3) 개인의료기밀(confidentiality) - 해당 사이트에 제출된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는 보호되고 기밀성을 존중해야 함.
- (4) 정보출처(attribution) - 게시된 정보 출처(사용 가능한 경우 URL) 및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점에 대해 밝혀야 함.
- (5) 정보정당성(justifiability) - 모든 정보 서비스는 균형 잡히고 잘 참조된 과학적 정보에 의해 지원되어야 함.
- (6) 작성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authorship) - 작성자의 연락처(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7) 후원자의 투명성(Transparency of sponsorship) - 사이트의 자금 출처 표시 필요함.
- (8) 광고와 편집정책의 정직성(Honesty in advertising and editorial policy) - 사이트 내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광고/선전내용”

과 작성자에 의해 작성된 “원자료”를 쉽게 구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

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니고 건강 웹사이트의 공식인증기관과 연구기관으로 알려졌던 HON 협회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동시에 발적으로 전세계에서 생성되는 건강정보의 양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듯, 위기를 맞았다. 2022년 9월, HON 협회 웹페이지에는 “HON은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2022년 12월 15일에 영구적으로 중단된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년 3월 이래로, HON 협회의 도메인은 사라진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ON 코드는 온라인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 30년 가까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평가도구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평가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특정 질병과 관련한 온라인 건강 정보를 평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김미예 외(2009)는 국내 위암과 관련한 웹사이트들을 평가하였고, Ch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국내 알레르기성 비염과 관련한 온라인 사이트들을 실태조사 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자경 외(2007)는 국내의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정보 웹사이트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주로 상업적 사이트가 주를 이루며 정보의 질 평가에서 대체 보완요법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성을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대조적으로, 특정 질병이 아닌 정보 이용자의 생애주기를 토대로 특정 연령층, 예컨대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평가한 국내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다. 한경자 외(2006)는 48개의 인터넷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고, 정용선, 김진선(2012)은 아동 발달 관리와 관련한 국내 웹사이트 48개를 분석한 결과, 발달관리와 관련한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은 매우 취약하여 보호자들이 인터넷 정보원을 활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손현미 외(2018)는 영유아 관련한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건강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온라인 건강정보의 양적 증가는 오히려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좀 더 확대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광역(지역)대표 도서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HON 코드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국내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유형별로 선정하여 평가하고, 차후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서비스에 도움이 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본 연구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우리나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국내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에서 실제로 검색되는 건강정보를 유형별로 선정 및 평가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차후에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건강정보 서비스를 개발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목표를 이루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법과 내용분석법이 활용되었다. 전반적인 연구설계는 <그림 4>에 나타나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건강정보의 개념 정의, 우리나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국내외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 나아가 국내외 온라인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도구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세부 주제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들을 파악하고, 3개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RQ1, RQ2, RQ3)을 생성하였다.

둘째, 두 가지 연구 질문(RQ1, RQ2)을 해결

하기 위하여 2024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17개 관의 웹페이지 내용 분석을 하였다. 연구자는 각 광역대표도서관의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온라인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의 주제별 유형(질병정보, 생활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 등)과 정보 제공의 주체(정부기관, 공공기관, 병원, 보건소, 기타 등)를 분석하였다. 정보의 주제별 유형과 정보 제공의 주체는 선행연구(Lee, 2018; 2019)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적용되었다. 예컨대, Lee(2018)의 연구에서는 건강 주제를 10개 넘게 보고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질병정보, 생활정보, 데이터, 프로그램으로 4개의 주제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Lee(2019)의 연구에서는 정보 제공의 주체를 19개로 세분화하여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병원/보건소, 기타 등으로 4개의 주체로 구분하였다. 나아가, 해당 건강정보가 어떠한 건강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두 번째 연구 질문(RQ2)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광역대표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제언

연구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기간	2024년 5월 초 ~ 6월 중순	2024년 6월 15일 ~ 7월 5일	2024년 7월 8일 ~ 7월 26일
연구방법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 서비스와 관련한 문헌조사 (문헌연구법)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17개관 홈페이지에 제공된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 분석 및 HON code에 따라 평가 (내용분석법)	국내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을 통해 검색된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유형별 선정 및 HON code에 따라 평가 (내용분석법)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 질문	연구질문 탐색 및 생성	연구질문 1 (RQ1), 연구질문 2 (RQ2)	연구질문 3 (RQ3)
연구목표	1, 2, 3단계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 서비스에 대한 제언		

<그림 4> 연구설계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관련한 온라인 정보원을 대상으로 건강정보 평가 도구 중 하나인 HON 코드의 8가지 기준을 토대로 3점 리커트 척도(3점: 만족, 2점: 보통, 1점: 불만족)에 따라 평가하였다. 연구자는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회에 걸쳐 평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셋째, 세 번째 연구 질문(RQ3)에 답하기 위해, 연구자는 2024년 7월 8일부터 26일까지 국내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두 개의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에서 “어린이 건강정보”, “청소년 건강정보”, “어린이 청소년 건강정보”라는 세 가지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검색엔진에서 상위 20개의 검색 결과로 제시된 웹사이트 중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온라인 정보원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후, 해당 정보원들을 주제별 유형(질병 정보, 생활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 등)과 정보 제공 주체(정부기관, 공공기관, 병원/보건소, 기타 등)에 따라 분류하였고, 검색 결과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한 정보원을 우선하여 유형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질문(RQ3)의 분석 대상 12개의 온라인 정보원은 <표 2>와 같다. 이를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도구 중 하나인 HON 코드의 8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3점 리커트 척도(3점: 만족, 2점: 보통, 1점: 불만족)를 이용하여 평가를 시행하였다.

4. 연구결과

4.1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제공 현황

국내 17개 광역대표도서관의 웹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단 2개 관(11.8%)에 불과하며, 이들 도서관은 총 32개의 건강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도서관은 서울도서관과 경북도서관이다.

먼저, 서울도서관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31개의 온라인 건강정보 자료를 제공했다.

<표 2> 국내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된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원 유형별 선정 결과

	질병정보	생활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
정부기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질병관리청 “건강조사 데이터”	보건복지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행사 및 교육”
공공기관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정보”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식생활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청소년건강통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환경보건 교육과정”
병원/보건소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 질환정보”	세브란스병원 “어린이 건강관리”	-	-
기타	건강**연구회	블로거 S의 개인 블로그	-	-

서울의료원이 운영 및 관리하는 “서울시민 건강포털”을 포함하여, 서울시 산하 병원 중 5개의 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사이트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도서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이 25개 정보원에서 모두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경북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1개의 정보자원을 제공하는데, 정신건강과 관련된 공공기관인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건강검진”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의 일부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내용의 중복성이 뚜렷하여, 일부 선별하여 <표 3>에 보고하였다.

두 개의 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관련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서울도서관의 경우, 자료검색의 하위에 “지식문화컨텐츠”라는 영역이 존재했고, 그 안에 “공공, 일상, 전문정보”라는 형태로 다양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 중,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한 건강정보는 “공공정보”의 범주 아래 “서울특별시”, “보건·식품”으로 분류하여 6개의 정보자원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동일한 “공공, 일상, 전문정보”의 “공공정보” 범주 아래 “자치구”, “보건·식품”으로 분류된 곳에는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의 보건소 웹페이지와 각 정보원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대조적으로 경북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 팝

업창을 통해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 건강검진” 사이트를 안내하고 있었다. 팝업창에 마음건강검진 온라인 정보자원을 제공하였고, 해당 정보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소개나 설명은 부재하였다. 다만,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접속해보면, <그림 5>와 같이 정보이용자의 생애주기(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따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후 상담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연계된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사이트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학습장애, 아동 및 청소년 기분장애, 자해와 같은 5가지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음은 두 개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관련 32개의 정보원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정보 제공 주체를 정부기관, 공공기관, 병원, 보건소, 기타 등으로 분류한 결과, 총 32개의 건강정보원 중 25개(78.1%)는 보건소에서 제공된 것이었으며, 병원에서 제공된 정보원은 6개(18.8%), 공공기관에서 제공된 정보원은 2개(6.3%)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정보원을 주제별 유형으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질병정보, 생활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정보원(32개, 100%)이 질병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9개의 정보원(90.6%)은 예방접종, 영양, 식단, 운동 등과 같은 생활정보를 포함하였다. 또한, 23개의 정보원(71.9%)은 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25개의 보건소에서는 질병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반면, 병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건강정보

〈표 3〉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

	정보자료명(URL)	제공도서관	개요	정보제공의 주체	정보주제의 유형	건강 주제(Health Topics)
1	서울시민 건강포털 (https://health.seoulmrc.or.kr/)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운영 - 서울시민을 위한 건강포털 홈페이지로 온라인 건강상담 운영, 다양한 분야의 건강 정보 제공,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 관 정보 제공	공공기관 및 병원	질병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	구개열, 소아비만, 성조숙증, 생리통, 소아청 소년기고혈압, 수족구병, 간기, 여드름 등 운동과 식생활정보 등 16세 이상 비만개선프로그램, 금연지원프로그램 등
2	서울의료원 (https://www.seoulmrc.or.kr/site/kr/index.jsp)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위치. - 종합병원, 진료안내, 진료예약, 의료정 보 등 제공	병원	질병정보	알레르기성 비염, 장염 등
3	보라매병원 (https://www.brmh.org/main/main.do)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 5길 20 위치. - 종합병원, 진료안내, 진료예약, 진료중 진정보 등 제공	병원	질병정보	소아비만, 알레르기, 변비, 신생아 황탈, 코론 병 등
4	서북병원 (https://sbhosp.seoul.go.kr/)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7길 49 위치. - 결핵 및 감염병 전문병원, 진료안내, 건강정보 등 제공	병원	생활정보	성장과 발달, 예방접종 등
5	어린이병원 (https://childhosp.seoul.go.kr/medi cal-information)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릉로 260 위치. - 장애어린이 및 비장애어린이 전문진료, 진료안내, 재활치료	병원	질병정보 생활정보	로타바이러스, 철부, 혼액, 풍진, 수두, 수족구 병, 소아비만 등 성장, 발육, 예방접종 등
6	은평병원 (https://ephosp.seoul.go.kr/medical- information)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현산로 90 위치. - 정신질환자 전문진료, 진료안내, 진료 예약, 건강검진 등 안내	병원	질병정보 프로그램 정보	아동과피부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 및 청소 년 우울증 등 어린이 낚병원(취학 전 발달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운영되는 프로 그램)
7	강동구보건소 (https://health.gangdong.go.kr/heal th/site/main/home)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45 위치 - 진료/검진/이용 안내, 보건 및衛生 관 련 안내,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소개	보건소	질병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	감염병 정보, 아토피질환 등 예방정보 어린이건강동산(체육형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정보자료명(URL)	체공도서관	개요	정보제공의 주체	정보주제의 유형	건강 주제(Health Topics)
8 구로구보건소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8길 66 위치 - 진료/검진/이용 안내, 보건 및 위생 관련 안내, 건강정보 및 체험식 건강교육 제공	보건소	질병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	감염병 정보, 이토피질환 등 예방접종, 구강보건, 영양, 운동, 비만 등 어린이 건강체험관(금연, 철주, 성교육·성 폭력예방, 영양, 운동, 순서기, 소화, 구강위 생, 스마트폰 중독 등 체험식 교육체험) 등	
9 노원구보건소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위치 - 진료/검진/이용 안내, 보건 및 위생 관련 안내,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소개	보건소	질병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예방접종, 구강보건, 영양, 운동, 비만 등 과일 먹고 놀자, 어린이 키쑥쑥! 배쑥쑥! 프로그램, 척추측만증 및 거북목증후군 검진, 소아암의료비 지원 등	
10 서초구보건소	서울도서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위치 - 진료/검진/이용 안내, 보건 및 위생 관련 안내, 생애주기별 건강정보 소개	보건소	질병정보 생활정보 프로그램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예방접종, 구강관리, 영양 등 서초아이 뛰움, 꿈나무 체험영양 교육프로그램 등	
11 경상북도 청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점진	경북도서관	- 경상북도 경주시 광중길 24 위치 - 경상북도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생명 존중 문화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상을 형성하고자 함, 어린이 및 청소년 뿐만 아니라 마음건강점진 및 추후 상담 가능	공공기관	질병정보 프로그램 정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턱장애, 학습장애, 이동 및 청소년 기분장애, 자폐 등 마음건강점진	



〈그림 5〉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검진 사이트

는 주로 질병정보와 생활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공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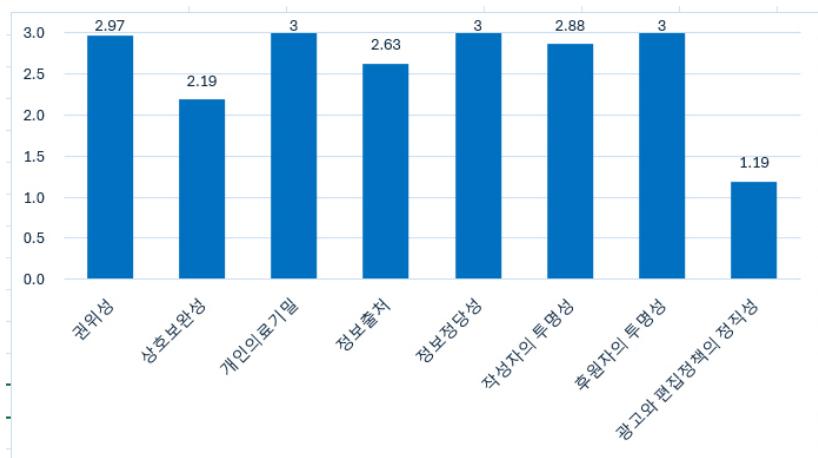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32개 정보원을 건강 주제(health topics) 별로 범주화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30개 (93.8%)의 정보원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8개(87.5%)의 정보원은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28개(87.5%)의 정보원에서는 감염병 관련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성(性)과 관련된 건강 주제는 주로 성조숙증, 생식기 질환과 같은 질병 정보, 또는 성장과 발달에 관한 생활정보로 제한되어 있었다.

4.2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 정보원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웹페이지

지를 통해 제공되는 32개의 어린이 및 청소년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HON 코드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Boyer et al., 2011;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2023)에 따르면, HON 코드는 1990년대 초반 웹 개발 이후 온라인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 오랜 역사를 가지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핵심적인 평가도구이기에, 본 연구에서 적용하였다. 선행연구 2.4에서 설명된 8가지 기준(권위성, 상호보완성, 개인의료기밀, 정보출처, 정보정당성, 작성자의 투명성, 후원자의 투명성, 광고와 편집정책의 정직성)에 대해 3점 리커트 척도(3점: 만족, 2점: 보통, 1점: 불만족)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는 〈그림 6〉에 제시되어 있으며, 〈그림 6〉은 각 기준에 대한 32개 정보원의 평균 평가 점수를 나타낸다.

우선, 32개 건강정보원은 8가지 평가 기준 중 개인의료기밀, 정보정당성, 후원자의 투명성에 대해 매우 높은 만족도($M=3.0$)를 기록하였다.



〈그림 6〉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원에 대해 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 결과

모든 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체계 적이고 명확한 방침을 웹페이지에 제시하고 있었으며,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질병관리청 또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등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하여 균형 잡힌 과학적 정보를 담고 있었다. 또한, 후원자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 결과, 정보 제공의 주체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보건소 포함)이며, 병원들도 시립병원으로 나타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기준은 권위성 ($M=2.97$, $SD=0.18$)과 작성자의 투명성 ($M=2.88$, $SD=0.49$)이다. 예를 들어, 작성자의 투명성 기준에서는 건강정보와 함께 작성자의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가 명시되어야 하지만, 32 개 정보원 중 2개(6.3%)는 작성자의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지 않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국내 광역(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32개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기준들은

정보출처($M=2.63$, $SD=0.79$), 상호보완성($M=2.19$, $SD=0.40$), 및 광고와 편집정책의 정직성 ($M=1.19$, $SD=0.59$)이다. HON 코드에 따르면, 정보출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게시된 정보의 출처 및 최종 업데이트 시점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32개 정보원 중 6개(18.8%)는 특정 건강정보의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을 생략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상호보완성 기준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M=2.19$, $SD=0.40$). HON 코드의 상호보완성 기준에 따르면, (1) 온라인 정보원의 목표와 이용대상이 명확히 서술되어야 하며, (2)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원은 32개 중 6개(18.8%)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건강포털(서울특별시청, [발행년 불명])은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건강관리의 편의를 위함으로 건강에 이상 증상

이 있을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명확히 기술하여 본 기준을 충족하였다. 26개(81.2%)의 정보원은 상호보완성 기준 가운데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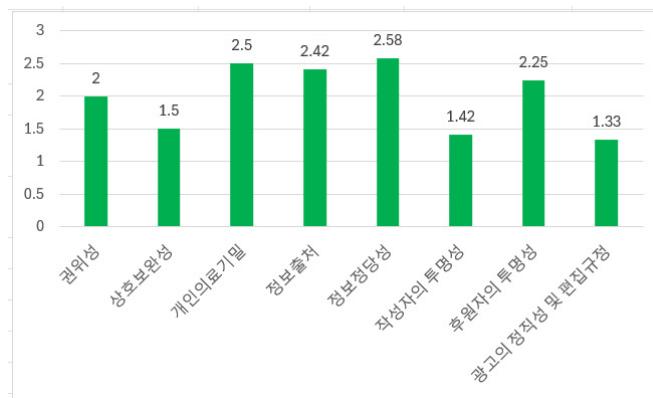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HON 코드의 8가지 기준 중 가장 큰 문제는 광고와 편집정책의 정직성($M=1.19$, $SD=0.59$)에 관한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보원 내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이용자가 “광고/선전 내용”과 “원자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32개 정보원 중 3개(9.4%)만이 사이트 내 광고 및 편집정책에 대해 명확히 서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 건강포털(서울특별시청, 발행년불명)은 “광고정책 - 본 사이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하지 않으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사이트를 해당 사이트의 승인을 얻어 주소링크, 배너링크를 통하여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 중구 보건소[발행년불명]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를 전자우편, SMS(문자 메시지 전송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의 정보원(29개, 90.6%)은 광고나 정보 편집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명시하지 않고 있었다. 물론, 공공기관, 병원, 보건소 등의 웹페이지에 광고성 글을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보원은 명확한 광고 및 편집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이용자

들이 정보를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 국내 검색엔진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원 평가

세 번째 연구질문(RQ3)에 답하기 위해, 국내 주요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구글에서 “어린이 건강정보”, “청소년 건강정보”, “어린이 청소년 건강정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사용하여 검색을 수행하였다. 각 검색엔진에서 상위 20개의 검색 결과로 제시된 총 120개의 웹페이지를 대상으로 정보 제공 주체(정부기관, 공공기관, 병원, 보건소, 기타 등)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웹페이지 120개 중에서 기타(블로거, 사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건강 정보가 41개(34.2%)로 가장 많았으며, 정부기관(34개, 28.3%), 병원(22개, 18.3%), 공공기관(21개, 17.5%), 보건소(2개, 1.7%)가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원의 정보 제공 주체와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120개의 정보원 중 2회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난 17개의 온라인 정보원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후, 이들 정보원을 주제별 유형(질병 정보, 생활 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 등)과 정보 제공 주체(정부기관, 공공기관, 병원/보건소, 기타 등)로 분류하였다. 검색 결과에서 더 빈번하게 등장한 정보원을 우선적으로 유형별로 선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12개의 정보원에 대해 HON 코드의 8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정보원의 평균 평가 점수는 <그림 7>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7〉 검색엔진(네이버, 구글)을 통해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원에 대해 유형별로 선정하여 HON 코드에 따라 평가한 결과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 정보는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원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HON 코드의 8가지 기준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및 기타 출처(블로그, 모임 등)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는 “권위성 ($M=2.0$, $SD=0.95$)” 기준에서 의료 전문가에 의해 제공된 정보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작성자의 투명성($M=1.42$, $SD=0.67$)”과 관련해서는, 작성자의 연락처 또는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건강정보원이 12개 중 8개(66.7%)에 달했다. 아울러, “상호보완성 ($M=1.5$, $SD=0.80$)” 측면에서도, 분석된 12개의 정보원 중 2개(16.7%)만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것임을 명확히 서술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2024)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사이트 하단의 일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건강정보는 이들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정보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한 이용 안내 문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환자와 의료 전문가 간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5. 논의 및 제언

국내 17개의 광역대표도서관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단 2곳(1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5년 전 미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

교할 때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Hughes-Hassell과 Hanson-Baldauf(2010)의 연구에 따르면, 101개의 미국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중 36개 (35.6%)가 청소년 이용자를 위한 온라인 건강 관련 자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미국 공공도서관이 1970년대 중반부터 대중의 건강정보 수요에 대응해 온 점을 고려할 때(Baker & Manbeck, 2002),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의 온라인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은 향후 확대 및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국내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비자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영희(2011)는 국내 공공도서관 중 8.3%만이 소비자 건강정보와 관련된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노영희와 오상희(2011b)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5.4%의 도서관만이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비록 '2010년 도서관연감'에 수록된 74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노영희(2011)의 연구 모집단과 본 연구에서 분석한 17개 광역대표도서관의 웹페이지는 표본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건강정보 서비스를 특정 연령층으로 국한하지 않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의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와 청소년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현황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광역대표도서관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도서관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혜영(2020)은 도서관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문제를 가진 개인들이 함께 모여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은 지역 내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를 연계해주는 '커뮤니티 허브(community hub)'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는 도서관 간 편차가 크며, 대다수 도서관(15개 관, 88.2%)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건강정보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2개의 광역대표도서관은 총 32개의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보 제공 주체별로 분류한 결과, 32개의 건강정보원 중 25개(78.13%)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였으며,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은 6개 (18.75%),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원은 2개(6.2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질문 3(RQ3)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검색엔진인 네이버와 구글에서 "어린이 건강정보", "청소년 건강정보", "어린이 청소년 건강정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검색된 결과의 정보 제공의 주체와 비교했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분석 결과, 120개의 웹페이지 중에서 기타 출처(블로거, 사기업 등)가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41개(34.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정부기관(34개, 28.3%), 병원(22개, 18.3%), 공공기관(21개, 17.5%), 보건소(2개, 1.7%)가 이었다.

광역대표도서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건강정보와 검색엔진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비교는 매우 중요하다. 광역대표도서관이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주로 보건소, 병원, 공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반면,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다양한 출처, 특히 기타 출처(블로거, 사기업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신뢰성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서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HON 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기타 출처(블로거, 사기업 등)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김자경 외(2007)는 국내외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아토피피부염 관련 정보 웹사이트를 평가한 결과, 상업적 사이트가 다수를 차지하며, 대체 보완요법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손현미 외(2018)는 영유아 건강 관련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평가한 결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부족하며, 온라인 건강정보의 양적 증가가 오히려 정보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는, 광역대표도서관 나아가 공공도서관에서의 건강정보 서비스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nd

the Consumer and Patient Health Information Section(1996, 239)은 “도서관 사서의 역할은 다양한 권위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장된 모든 자료의 과학적 정확성이나 최신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사서의 활동은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 개인이 더 나은 건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돋는 사회적·공동체적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록 사서가 의료 및 건강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전문가로서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안내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김혜영, 2020; Linnan et al., 2004).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원(예컨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각 지역 보건소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온라인 정보원 32개를 주제별 유형(질병정보, 생활정보,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든 정보원(32개, 100%)이 질병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29개 정보원(90.6%)은 예방접종, 영양, 식단, 운동 등과 같은 생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23개 정보원(71.9%)이 아동 및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검색엔진을 통해 제공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와 비교했을 때, 해당 연령층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통계 데이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그림 8>과 같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건강조사데이터”나 한국보건산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Policy Information', 'Health Information', 'National Policy', 'Research Development', 'Information Bulletin', 'Health Trends', 'Ministry Information', and 'About the Agency'. Below the navigation, there's a search bar and a link to 'Unified Search'.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Policy Information' on the left and 'Health Survey' on the right. Under 'Policy Information', there are dropdown menus for 'Health Information', 'National Policy', 'Research Development', 'Information Bulletin', and 'Health Trends'. Under 'Health Survey', there are dropdown menus for 'Teen Health Survey' (which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Local Health Survey', 'Teen Health Trend Survey', and 'National Health Survey'.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s a section titled 'Survey Introduction' with a note about the survey's purpose and scope.

〈그림 8〉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건강관련 통계 데이터세트

업진홍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건강통계”와 같은 신뢰할만한 건강 관련 통계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계 데이터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온라인 건강정보 평가도구 중 하나인 HON 코드를 활용하여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원을 평가한 결과, 8가지 기준 중 “상호보완성”, “정보출처”, “작성자의 투명성”, “광고 및 편집 정책의 정직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정보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기관들은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제공되는 건강정보가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National Library of Medicine[n.d.]은 다음과 같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NLM)은 특정 의료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인 의료 사례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견을 제공하거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진단과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자격 있는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립 의학도서관 사이트 Knowledge Base의 일부)

둘째, “정보출처”와 관련해서는 해당 건강정보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 및 편집정책의 정직성” 기준에 따라, 정보원 내 광고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정보 이용자가 “광고/선전내

용”과 “원자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 병원, 보건소 등의 웹페이지에서 광고성 내용을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정보원은 광고 및 편집정책을 명료하게 수립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정보를 활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인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아동 및 청소년 건강 정보서비스의 이해를 위해 17개 관 웹사이트를 분석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국내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건강정보 서비스 전반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 정보 서비스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통계에 등록된 1,236개 공공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2024)의 홈페이지를 모두 분석하는 방식으로 후속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도서관 홈페이지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광역대표도서관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온라인 건강정보 서비스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분석만

으로는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웹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넘어, 공공도서관 사서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현장의 경험과 직면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비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셋째, 건강정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하나의 평가 기준(HON 코드)보다는 2-3개의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랜 시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된 평가도구(HON코드)를 한가지 선택하여 평가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광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의료 및 건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전문가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공도서관은 “커뮤니티 허브”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병원 및 공공보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해숙, 김성희 (2020). 청소년의 건강정보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357-3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57>
- 김미예, 태영숙, 정귀임 (2009). 국내 위암 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평가. *간호행정학회지*, 15(1), 5-15.
- 김자경, 김정희, 임대현, 손병관 (2007). 아토피피부염 관련 웹사이트 질 평가 분석.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17(3), 282-288.
- 김혜영 (2020). 도서관의 건강정보서비스. *도서관이야기*, 134, 14-19.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김홍렬 (2009).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서들의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115-132. <http://doi.org/10.16981/kliss.40.1.200903.115>
- 노영희 (2011). 국내 공공도서관의 소비자건강정보 제공현황 조사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415-437. <http://doi.org/10.4275/KSLIS.2011.45.2.415>
- 노영희, 오상희 (2011a). 문헌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공공도서관 소비자건강정보(CHI) 서비스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47-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1.047>
- 노영희, 오상희 (2011b). 공공도서관에서 소비자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3), 22-5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3.025>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4). 공공도서관 주요통계. 세종: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출처: <https://www.libsta.go.kr/>
- 박태연 (2015). 소비자건강정보의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배순자, 김병재 (2006). 道 광역대표도서관 건립계획에 관한 一考: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59-78. <http://doi.org/10.4275/KSLIS.2006.40.2.059>
- 변은샘 (2024. 5. 8.). 취약계층 아동 '디지털 학습 격차'이어 '건강 정보 격차' 우려. *부산일보*.
출처: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0818184788677>
- 보건복지부 (2024). 2024 자살예방백서. 서울특별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서울 중구 보건소 [발행년불명]. 홈페이지. 출처: <https://www.junggu.seoul.kr/health/>
- 서울특별시청 [발행년불명]. 서울시민 건강포털. 출처: <https://health.seoulmc.or.kr/>
- 손애리 (2000). 건강 관련 인터넷 사이트 평가를 위한 기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25(2), 97-107.
- 손현미, 제민지, 손영실 (2018). 영유아 온라인 건강정보의 질 평가.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1), 91-100. <https://doi.org/10.4094/chnr.2018.24.1.91>
- 여성가족부 (2024). 청소년통계: 건강.

- 출처: https://www.ypec.re.kr/mps/youthStat/health/stressAndDepress?menuId=MENU_00746
- 이혜영 (2024).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서비스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 미국 국립의학도서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1), 243-27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1.243>
- 정용선, 김진선 (2012). 아동발달관리에 대한 인터넷 정보의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702-713.
<https://doi.org/10.5392/JKCA.2012.12.12.702>
- 조영주, 김동식, 남궁윤영, 이혜경 (2018). 청소년 성교육 수요조사 연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과제) 8.
- 질병관리청 (2024).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
- 최한나 (2016). 온라인 건강정보 소비자의 건강정보 이용이 건강증진행위 의도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 통계청 (2024).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인구동향조사.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 한경자, 김정수, 김숙영 (2006). 인터넷 육아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한 평가. *아동간호학회지*, 12(1), 57-64.
- Anne-Laure, H. S., Maxime, M., Denise, B. M., Nathalie, B., & Cindy, S. (2024). Determining adolescent health information needs: a survey in Geneva, 2022. *Preventive Medicine Reports*, 41, 102682. <https://doi.org/10.1016/j.pmedr.2024.102682>
- Baker, L. & Manbeck, V. (2002). *Consumer Health Information for Public Librarians*. Lanham: Scarecrow Press.
- Borges do Nascimento, I. J., Pizarro, A. B., Almeida, J. M., Azzopardi-Muscat, N., Gonçalves, M. A., Björklund, M., & Novillo-Ortiz, D. (2022). Infodemics and health misinformation: A systematic review of review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100(9), 544-561.
<https://doi.org/10.2471/BLT.21.287654>
- Boyer, C., Baujard, V., & Geissbuhler, A. (2011). Evolution of Health Web Certification through the HONcode Experience. In Moen, A., Andersen, S. K., Aarts, J., and Hurlen, P. eds. *User Centred Networked Health Care*, 53-57. Available:
<https://ebooks.iospress.nl/ISBN/978-1-60750-805-2>
- Burns, F. A. (2015). The Library as an Intervention in Children's Health: An Assessment of How Five Public Libraries in North Carolina are Collecting and Circulating Children's Books that Promote Physical Activ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pel Hill, United States. <https://doi.org/10.17615/654x-0x34>

- Chang, M. Y., Han, D. H., Moon, I. J., Kim, S-T., Kim, D-Y., Lee, C. H., Min, Y-G., & Rhee, C-S. (2010). Assessment of allergic rhinitis websites in Korea. *Clinical and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3(1), 32-36. <https://doi.org/10.3342/ceo.2010.3.1.32>
- Flaherty, M. G. (2013). The Public Library as Health Information Resource?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United States.
- Fullard, A. C., Johnston, S. M., & Hehir, D. J. (2021). Quality and reliability evaluation of current Internet information regarding MESH use in inguinal hernia surgery using HON code and the DISCERN instrument. *Hernia*, 25, 1325-1330. <https://doi.org/10.1007/s10029-021-02406-8>
- Health On the Net Foundation (2023). HONcode Certification. Available: <https://web.archive.org/web/20230620122750/https://www.hon.ch/en/certification.html>
- Hughes-Hassell, S. & Hanson-Baldauf, D. (2010). Public Library Websites and Urban Teenagers' Health Information Needs. In Agosto, Denise E. and Hughes-Hassell, Sandra eds. *Urban Teens in the Library: Research and Practice*.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01-111.
- Lee, H. S. & Smith, C. A. (2022). A comparative mixed methods study on health information seeking among US-born/US-dwelling, Korean-born/US-dwelling, and Korean-born/Korean-dwelling mothers.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73(7), 929-943. <https://doi.org/10.1002/asi.24601>
- Lee, H. S. (2013). Teen Health Information Evaluation of North Carolina Public Libraries' Websites.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pel Hill, United States. <https://doi.org/10.17615/9zkm-0e54>
- Lee, H. S.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health information needs, seeking and source preferences among mothers of young healthy children: American mothers compared to recent immigrant Korean mothers. *Information Research*, 23(4), paper 803. Available: <https://informationr.net/ir/23-4/paper803.html>
- Lee, H. S. (2019). Health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mong Mothers of Healthy Infants and Toddlers: A Comparative Study of U.S.-Born, Korean-Born, and Immigrant Korean Mothe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United States.
- Linnan, L. A., Wildemuth, B. M., Gollop, C., Hull, P., Silbajoris, C., & Monnig, R. (2004). Public librarians as a resource for promoting health: Results from the Health for Everyone in Libraries Project (HELP) librarian survey. *Health Promotion Practice*, 5(2), 182-190. <https://doi.org/10.1177/1524839903258018>

- Lukenbill, W. B. & Immroth, B. F. (2007). Health Information for Youth: The Public Library and School Library Media Center Role. United Kingdom: Libraries Unlimited.
- Medical Library Association and the Consumer and Patient Health Information Section (1996). The librarian's role in the provision of consumer health information and patient education.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4(2), 238-239.
- Miller, N., Lacroix, E. M., & Backus, J. E. (2000). MedlinePlus: building and maintaining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s consumer health Web service.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8(1), 11-17.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23). About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Bethesda: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Available: <https://www.nlm.nih.gov/about/index.html>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24). Evaluating Internet Health Information: A Tutorial from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MedlinePlus. Available: <https://medlineplus.gov/webeval/intro1.html>
-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d.]. How Do I Get Advice about My Disease and Its Treatment? Available: <https://support.nlm.nih.gov/knowledgebase/article/KA-03345/en-u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3). Fertility Rates. OECD Family Database. Available: <https://web-archive.oecd.org/temp/2024-06-21/69263-database.htm>
- Suarez-Lledo, V. & Alvarez-Galvez, J. (2021). Prevalence of health misinformation on social medi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 23(1), e17187. <https://doi.org/10.2196/17187>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Bae, Soon-Ja & Kim, Byeong-Jae (2006). A study on planning of widely representative library building in Jeollabuk-d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59-78. <https://doi.org/10.4275/KSLIS.2006.40.2.059>
- Byeon, Eun-sam (2024. May 8). Concerns over 'Health Information Gap' for Vulnerable Children Following the 'Digital Learning Gap'. Busan Ilbo. Available: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50818184788677>
- Cho, Young-Ju, Kim, Dong-Sik, Nam-Gung, Yun-young, & Lee, Hye-Kyong (2018). A Study on Demand Survey on Sexuality Education for Youth.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hoi, Hanna (2016). Factors Affecting Behavioral Inten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Consumers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Han, Kyung-Ja, Kim, Jeong-Soo, & Kim, Sook-Young (2006). The evaluation of the child-care websites on the Internet. *Korean Journal of Child Health Nursing*, 12(1), 57-64.
- Jeong, Yong-Sun & Kim, Jin Sun (2012). Evaluation of Internet information on childhood fever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12), 702-713.
<https://doi.org/10.5392/JKCA.2012.12.12.702>
- Kim, Hong-Ryul (2009). The recognition of librarians about roles of regional centra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115-132.
<http://doi.org/10.16981/kliss.40.1.200903.115>
- Kim, Hyeyoung (2020).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Libraries. *The Library Story*, 134, 14-19. Seoul: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Kim, Ja Kyoung, Kim, Junghee, Lim, Dae-Hyun, & Son, Byung-gwan (2007). Qualitative assessment of atopic dermatitis-related websites.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 17(3), 282-288.
- Kim, Mi Yea, Tae, Young Sook, & Jung, Kwuy Im (2009). Evaluation of gastric cancer information web sit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5(1), 5-15.
- Ko, Haesook & Kim, Seonghee (202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health information literacy of adolesc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 357-3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1.357>
-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2024). National Health Information Portal. Available: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
- Library Act. Law No. 19592.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Key Statistics of Public Libraries. Sejong: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Available: <https://www.libsta.go.kr/>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24). Youth Statistics: Health. Available: <https://www.ypec.re.kr/mps/youthStat/health/stressAndDepress?menuId=MENU00746>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4). 2024 White Paper on Suicide Prevention. Seoul, Republic of Korea: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 Noh, Younghée & Oh, Sanghee (2011a). A critical analysis of literature for consumer health information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47-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1.047>
- Noh, Younghée & Oh, Sanghee (2011b). An analysis of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providing CHI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 Science, 22(3), 22-5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1.22.3.025>
- Noh, Younghée (2011). An analyzing of the current CHI services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415-437. <http://doi.org/10.4275/KSLIS.2011.45.2.415>
- Park, Taeyeon (2015).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Rhee, Hey-Young (2024). Research on service development plans for the National Center for Medical Information and Knowledge: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1), 243-272.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1.243>
- Seoul Jung-gu Health Center [n.d.]. Homepage. Available: <https://www.junggu.seoul.kr/health/>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d.]. Seoul Citizens' Health Portal. Available: <https://health.seoulmc.or.kr/>
- Sohn, Aeree (2000). Criteria for evaluating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25(2), 97-107.
- Sohn, Hyun-Mi, Je, Minji, & Sohn, Young-Sil (2018). Quality evalution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related to young child.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4(1), 91-100. <https://doi.org/10.4094/chnr.2018.24.1.91>
- Statistics Korea (2024). Number of Births, Total Fertility Rate, etc. Population Trend Survey. Availabl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heckFlag=N

